

SOCIETY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장흥 옥당리서 마한시대 생활유적 다수 발견

광산구, 재난관리 '최우수' 특교세 1억6000만원 확보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재난관리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종합 평가다.

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분야에 걸쳐 연간 실적과 재난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광산구는 이번 평가에서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기관장 대상 재난 대응 심층 인터뷰,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부문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 과정에서 광주시와 협력해 유가족 전담지원반, 장례지원반을 운영해 신속 대응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현장 중심 재난대비 훈련 부문은 지난해 재난대비 상시훈련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등 실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 훈련 체계가 성과로 이어졌다.

광산구는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1억6000만원의 특별교부세·포상금 등 성과급(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됐다. 임정호 기자 jh4415@

지상건물지·장란형토기 등 유구 13기·유물 11점 “주변 지역 훼손되지 않도록 지자체·학계 관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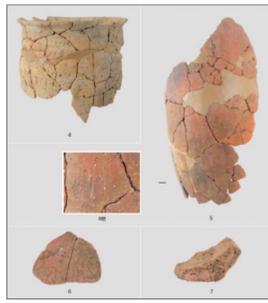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서 마한 초기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유적이 발견됐다.

11일 장흥군과 대한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원삼국~삼국(마한) 시대의 주거지 5기, 지상건물지 2기, 수혈 6기 등 유구 13기와 유물 11점이 출토됐다.

이번 조사는 전남 동부권 마한 유적의 실체를 규명하고 향후 보존 정비를 통해 학술·교육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2023년 5월15일부터 6월9일까지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531-14번지(2000m)에서 진행됐다.

주거지는 조사 대상 지역의 남서쪽에서 3기, 중앙부에서 2기가 나왔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계이며 1~3호 주거지, 4호와 5호 주거지가 중복 양상을 보였다. 이중 1호 주거지는 장란형으로, 규모는 길이 264cm, 너비 234cm, 깊이 5cm였다. 주거지 중앙부에는 직경 56×55cm, 깊이 6cm 규모의 수혈과 직경 30×26cm, 깊이 32cm의 수혈이 각각 확인됐다.

해발고도 8.32m 지점에 자리한 1호 지상건물지는 방형계 구조로, 전체 규모는 274cm×296cm다. 직경 22~28cm 크기의



원삼국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주혈 7개가 있었다.

6기의 수혈은 중앙부와 남쪽 지점에서 확인됐다. 4호 수혈의 규모는 길이 441cm, 잔존너비 314cm, 깊이 15cm다. 평면

형태는 원형계이며, 일부 벽이 최근 수로 매설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5호 수혈은 유구 중앙부를 관통하도록 수도관이 매설돼 훼손된 상태였다.

유물은 토기류 11점으로 주거지에서 10점, 수혈에서 1점이 발견됐다. 유형별로 보면 장란형토기 2점, 호(壺) 1점, 발(鉢) 2점, 동체부 3점, 저부 2점이다.

두 장란형토기 모두 외면에 타날문(두드림무늬)은 확인되지 않았고, 회전대를 사용한 제작 기술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물번호 4번 장란형토기는 내면에 점토 밀림이 관찰되고 목판 굽기로 면을 다듬었다. 유물번호 5번 장란형토기는 내외면을 중 방향의 목판 굽기로 정리됐다. 호의 동체부와 저부는 유실됐고 구연부

만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마한 유물 중 하나인 발은 취사 용기와 술 받침으로 사용됐으며, 한강 유역을 비롯한 충청·전라 권역에 분포했다.

조사 지역은 장흥 관산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기 이전 정리된 농경지였으며, 마을 주민은 이 일대를 '바우정마을', '바우정마을', '암정마을'로 불렀다.

조사를 담당한 대한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발굴조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과정에서 유적 내 공원,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고 본래의 원형과 유적의 일부가 훼손된 점은 안타깝다”며 “보존된 유적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무등산국립공원, 의재미술관~새인봉 갈림길 통제

8월19일까지...1.4km 구간

무등산국립공원 의재미술관~약사사~새인봉 갈림길 구간이 문화유산지구 정비공사로 전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8월19일까지 문화유산지구 정비공사가 진행되는 의재미술관~약사사~새인봉 갈림길 구간 탐방로 출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의재미술관~약사사 구간(930m) 노면 손상을 보수하고,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사업비 3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통제 구간은 1.4km, 기상 또는 공사 공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연장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공사 기간 다른 탐방로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랑, 해 빨간밥차' 11일 광주 서구 양동 자율방범초소 인근에서 열린 '사랑, 해 빨간밥차'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배식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교육청·남부대, RISE 사업 성공 힘 모은다

업무협약 체결...기업 지원·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광주교육청과 남부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정선 시교육감과 조준범 남부대 총장은 11일 남부대 대회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업 지원(기업 VALUE UP) △지역사회 성장 지원(지역사회 GROW UP) △대학 혁신 촉진(대학 INNO UP) 등을 협력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성공과 광주지역 교육·산업·인재 양성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범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학과 지역 교육의 연결은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의 핵심 축이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협약식 직후 남부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과 상징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특강에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리더 역량으로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과 미래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수 기자 joinsu@

현직 판사, 법정서 재판 청탁 공개하고 '호통' 청탁자 실명·직업 공개하기도...피고인 법정 구속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 청탁을 사주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피고인을 질타해 화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13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장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시작하기 직전 피고인 A씨(43)에게 “이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재판을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땀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까지 거론하며 “어떤 사이길래 직접 전화까지 해서 청탁을 하느냐. 단 한 마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그러자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이다”,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전화한 것 같다”고 실도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청탁자는 나에게 당신과 육촌 사촌이라고 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판에게 A씨의 발언을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

시했다. 이는 사건 조서에 판사 청탁 사실을 명기해 형소심 재판부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A씨는 “정말 죄송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B씨와는 2~3년 만난 사이다. 친한 형님이 연락을 하신 것 같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씨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엄벌을 내렸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피고인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각각 3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를 그냥 넘기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깐 잘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정진 기자 look@

동명동 **꽃분리** 플라워 카페

꽃분리

- 꽃·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 부케드라이 (부케액자, 부케무드통, 부케캔들)
- 커피카페 (한살리올라세끼)

전남여고
장동로터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

010. 6411. 7975

m.blog.naver.com/qwer445566

instagram.com/flower_buni